

전 희 경

포트폴리오



**하얀 쓰나미, 캔버스 위의 아크릴, 260x162cm, 2015**

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협곡과 심해에서 모티브를 얻어, 그린 작품입니다. 서로 닿지 않는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(제3의 공간)을 이끌어 내려 했습니다. 현실과 이상 이라는 닿지 않는 두 공간이 맞물려 있는 현상을 빗대어 표현한 작품입니다.



**깊은 들 숨, 캔버스 위의 아크릴, 232x91cm, 2016**

삶이 존재하는 공간과는 이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두개의 공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. 깊게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알 수 없는 다른 세상을 3인칭의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.



**닿을 수 없는 무아, 캔버스 위의 아크릴, 162x130cm, 2015**

회화를 그리는 작가로서 닿을 수 없는 회화의 경지, 그것으로부터 오는 좌절감을 그린 작품입니다. 화면 중간에 수피춤을 모티브로 한 인체의 형상이 등장하는데, 이는 끊임 없이 신과 조우하려는 것처럼, 이상태의 경지에 닿고자 그림을 그리면 회화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.



**이상적 삶 2, 캔버스 위의 아크릴, 116x91cm 2015**

노장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 상태; 물의 모습이다. 그 중에서 폭포의 형태는 생명이 있는 것 중, 유일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지닌다. 어지러운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 상태를 유지, 강요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다.



그 언덕 넘어, 거기 65x45cm, 캔버스 위의 아크릴, 2016

현실의 공간을 지나, 그 어딘가로 가면 존재할 것 같은 그 이상향. 그 곳의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.



**혼란스러운 무질서, 캔버스 위의 아크릴, 162x130cm, 2015**

삶, 현실의 모습을 추상적인 표현으로 그린 작품입니다. 화면의 구도, 터치와 색감은 혼란스러운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(정신적 현상)을 무한의 공간에 부유하는 떠다니는 터치로 표현하였습니다.



심연의 계단, 캔버스 위의 아크릴, 486x97cm, 2015

마음 속 깊이 있는 자아의 욕망의 계단을 내려가보면 있는 곳, 그 곳의 풍경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





심연의 계단, 부분



2014 겸재정선미술관 <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> 전시 전경

**In Between, 합성피혁 위의 아크릴, 630x225cm, 2011**

이상과 현실, 사이의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고 시각적으로 풀어나가는 시도를 한 회화 작품입니다.



**Moon scene, 54x72cm, 캔버스 위의 아크릴, 2014**

산수의 구도를 차용하고, 화면의 중앙에 이상적 상태( 현실 넘어, 저 달에는 이상향이 있다고 믿는), 그 외부에는 현상적 상태, 즉 현실의 어지러운 상태를 대비를 주어 표현한 작품입니다.